

소설은 억압적으로 설정된 인간조건에 대한 분노로 독자를 뽐뽐 얹어낸다.

이 책들은 공히 그 작품성을 세계적으로 검증받은 작품들이다. 하지만 백인 시각에서 흑인사회를 바라본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도서 출판 동인에서 기획출판한 <아프리카 문화연구소 기획총서(전4권)>의 일부로 나온 <나를 인간이라고 부르지 말라>(나딘 고디머 외, 이석호)는 백인, 유색인 작가들의 문제단편을 공평하게 반반씩 교차 편집해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나딘 고디머의 <로데시아 발기차>는 한 백인여성의 눈에 비친 흑인을 추적하는데, 연민의 시선 속에서 흑인 상인들의 처절하고 비극적인 모습이 부각되고 있다. 반면 표제작 음투투틀리 마초바의 <나를 인간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흑인이 관찰자다. 이 단편엔 소수 백인이 다수 흑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고용한 흑인 앞잡이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힘든 노역을 마치고 귀가하는 불쌍한 동족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 '신분증 검사'란 걸 한다. 이를 피해갈 수 있는 주민은 없다. 대부분 신분증이 없기 때문이다. 끌려가지 않기

위해선 개처럼 맞고 그날 일당을 토해놓을 수밖에 없다. 시포 세팸라의 <킹 테일러>의 주인공 테일러의 본명은 '벤들렌코시 델라'다. 이 소설은 위조 시민증을 발급받아 단속을 피하고 돈을 모은 한 흑인 술집주인이 '정체성' 문제로 괴로워하는 심리를 추적한다. 이 단편집은 은근히 독자에게 흑과 백의 차이를 인식시킨다. 고디머의 지식인적 냉소와 마초바의 강렬한 증오 사이에는 분명 '체험'과 '관찰', 그리고 '안'과 '밖'의 차이가 가로놓여 있다.

소설에 국한된 번역소개 아쉬워

동인의 총서 일부로 나온 <아프리카 탈식민주의 문화론과 근대성>(프란츠 파농 외, 이석호)은 아프리카와 서인도제도의 탈식민주의론을 문화론적 관점에서 묘파하고 있는 프란츠 파농과 아밀카르 카브랄의 글을 소개한다. 파농의 문화론으로 영화와 연극을 분석한 치디 아무타의 글도 선보인다. '아프리카의 근대문학과 영어'에서는 치누아 아체베와 응구기 와 씨옹오가 맞붙었다.

씨옹오는 1977년 이후 일체의 글을 부족어인 기쿠유어로 쓴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영어로 번역한 뒤 출판한다. 언어가 매개권력의 침

단이란 신념에서다. 반면 아체베는 국제어로 서 영어는 중요하기 때문에, 또 영어는 아프리카 땅에 뿌리내렸기 때문에 영어를 써야 하고 영어 안에서 식민주의와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화해는 용서보다 기억을 요구한다>(김영수)는 아프리카 대륙의 인종차별을 다룬다. 지은이는 특히 남아공 흑인노동자들의 차별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든다. 남아공 차별정책의 역사가 얼마나 깊고 비인간적이었는지는, 흑인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후에도 한동안 남아공의 노동법이 그들을 '노동자' 범주에서 제외시켜, 근로처우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문학에 대한 소개는 소설에 치우쳐 있다. 아프리카 문학개론서, 시나 희곡, 기타 인접 예술장르는 아직 그 대륙에 남아 있다. 아프리카를 향해 열어놓은 우리의 문은 매우 좁다. —강성민기자

아프리카에 대한 '편식'이 가장 큰 문제다

<아프리카 문화연구소 기획총서(전4권)> 펴낸 이석호 교수

'아프리카 문화연구소'는 서울에서 아프리카로 통하는 작지만 유일한 문으로, 소위 잘 나가는 영미문학이 아닌 아프리카 문화를 고집스레 연구하는 50여명의 회원이 사재를 털어 설립한 곳이다. 이곳을 이끄는 이석호 소장(39)은 현재 남아공 케이프타운대 방문교수로 가 있다. 그는 한국 인문학자들의 지적 편식을 매섭게 꼬집는다.

아프리카 문화연구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

"아프리카 문화일반을 조직적으로 소개하고자 설립했다. 구미를 통해 왜곡, 소개된 아프리카의 기형적 이미지를 바로잡음으로써 소위 '타자' 내지는 '주변부'로 분류된 제3세계 사이에 문화적 연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한다. 그 과정에서 대외 종속적인 한국 내 인문학 담론의 지적 편식을 교정해보자는 의도도 있다."

이번 총서의 기획의도와 앞으로의 발간계획은?

"아프리카 문화 일반을 특정 영역에 구애받지 않고 포괄적으로 담고자 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를 소개하는 책들은 '단발성'에 그쳤다. 책들보다는 소개하는 방법이 문제였다. 한 전문출판사가 아프리카 책들을 전담할 필요가 있다. 지금 아프리카는 '정전 다시

쓰기'가 전방위적으로 진행중이다. '이식된' 근대/탈근대를 여과 없이 수용하고 있는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교훈이 될 것이다."

아프리카 문학 하면 '저항'이란 말부터 떠오른다.

"저항문학이 아프리카 문학의 가장 큰 특징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프리카 문학을 모두 그것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 가령 서술이 시퍼런 식민주의 말기에도 나이지리아의 아모스 투투올라 같은 작가는 결코 저항문학이라고 부를 수 없는 <아자술에 취한 주정뱅이> 같은 걸작을 생산해낸다. 가브리엘 오키라 같은 시인의 시들도 마찬가지다. 좀더 중요한 것은 '저항문학'의 의미를 아프리카의 문맥에서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나를 인간이라고 부르지 마라>에 실린 단편들은 모두

남아프리카공화국 작가들 작품이다. 왜 그런가?

"소위 남아공 문학 하면 대개 '나딘 고디머' '제이 엠 쿠퍼' '안드레 브랑크' 같은 백인 작가들만 연상한다. 남아공에는 영어나 아프리칸스(네덜란드계 백인들이 쓰는 언어), 다시 말해 식민주의자들의 언어로 글을 쓰는 백인 작가들 외에도 인종적·언어적·문화적·종교적으로 배경이 다양한 훌륭한 작가들이 있다. 이런 다양성을 무시하고 남아공 문학의 대표성을 소수 백인 작가들에게 이양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책의 단편들은 한국 독자들에게 남아공 문학의 다양성을 일깨워주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